

[2020년 9. 19. 2차 경찰 시험 한국사 해설]

1. ①

[신석기 시대의 생활]

- ① 기원전 약 70만 년 전은 구석기 시대의 시작 시기이다.
- ② 갈돌과 갈판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 ③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이 시작되고 움집을 짓고 살았다.
- ④ 신석기인들은 농경이 시작되고 기존에 해오던 사냥과 고기잡이 등을 하면서 살았다.

2. ②

[고조선]

- ㉠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출토 지역을 통해서 고조선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등도 고조선의 범위와 관계된 유물이다.
- ㉡ 반고의 『한서』 지리지에 고조선의 8조법 중 3개 조항이 기록되어 있다.
- ㉢ 한나라 무제의 침입으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하였다.
- ㉣ 『동국통감』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이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 ㉤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3. ④

[백제 사비 시기]

사진 자료로 제시된 것을 차례로 보면 사택지적비(의자왕 대에 상좌평을 지낸 사택지적의 비), 금동대향로(부여 정림사지 터에서 출토), 목간(부여 능산리 출토), 금제 사리 봉안기(미륵사지 석탑 복원 공사 과정에서 발견)

제시된 유물은 모두 백제의 수도가 사비였던 시기의 유물이다.

- ㉡ 사비 식기 무왕 대에 익산에 미륵사지가 창건되었다.
- ㉢ 사비 시기 성왕 대에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하였다.
- ㉣ 사비 시기 성왕 대에 한강 유역을 신라에 빼앗겼다.
- ㉤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었다. 백제 한성 시기의 사실이다.
- ㉥ 벽돌무덤은 웅진(공주)이 수도였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공주 송산리 6호분과 7호분(무령왕릉)이 대표적인 벽돌무덤이다.

4. ②

[삼국시대 사건 순서]

- ㉡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대표 전투인 살수 대첩, 612) → ㉣ 백제의 대야성 공격(642) → ㉤ 당나라의 안시성 공격(645) → ㉢ 백제의 대야성 공격(642) → ㉠ 당나라의 평양성 공격(668) → ㉣ 당나라의 매소성·기벌포 공격(매소성 675, 기벌포 676)으로 순서가 정리되면 됩니다.

5. ③

[발해의 정치]

③ 발해 문왕 대의 연호는 대흥, 보력이다. 건흥은 선왕 대의 연호이다.

①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문왕 대에 당의 3성 6부를 모방해서 3서 6부 체제로 정비되었고, 지방 행정 조직은 선왕 대에 5경 15부 62주로 정비되었다.

②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의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당의 문화가 추가되었다.

④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18세기 후반 유등공의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6. ①

[나말여초의 시대 상황]

① 6두품은 6등급 아찬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의 장관이 될 수 없다.

② 신라 선덕여왕 대 처음 전래된 선종 불교는 통일 신라 말 교종과는 다른 유파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③ 태조 왕건은 숭불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경에 10여 개의 사찰을 건립하였고, 연등회와 팔관회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④ 고려 초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태조 왕건 대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 선으로 국경이 확장되었다.

7. ②

[최승로의 5조 정적평]

② 5조 정적평 중 혜종에 대한 기록인데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고”로 바꾸어야 한다.

① 5조 정적평 중 태조에 대한 옳은 기록이다.

③ 5조 정적평 중 광종에 대한 옳은 기록이다.

④ 5조 정적평 중 경종에 대한 옳은 기록이다.

8. ②

[최충헌 집권기의 농민·천민의 저항]

최충헌 집권기는 1196~1219년까지이다.

㉠ 최광수의 난(1217), ㉡ 이비·패좌의 난(1202), ㉢ 광명·계발의 난(난의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200에 세력이 커졌다는 기록이 있음) 등 3개로 정답은 ②

㉣ 이연년 형제의 난(1237, 최우 집권기), ㉤ 김사미·효심의 난(1193, 이의민 집권기), 전주 관노의 난(1182, 경대승 집권기)

9. ①

[공민왕 대의 사실]

①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한 시기는 우왕 대이다. 공민왕 대에도 요동 정벌이 이루어지는데 지용수와 이성계 등이 요동을 함락하였다.

② 공민왕 대에 홍건적의 1차(1359), 2차(1361) 침입이 일어났다.

③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에 대해서는 친선(친명) 정책

을 추진하였다.

④ 공민왕은 정방(인사권 담당 기구)을 폐지하여 국왕의 인사권을 회복하였다.

10. ④

[조선 태종과 세종 시기의 사실]

㉠ 태종실록, ㉡ 세종실록이다.

④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조 대에 고구려의 천문도를 석각한 것이다.

① 『농사직설』은 세종 대에 편찬되었다.

② 저화는 태종 대부터(조선으로만 시기를 한정하면) 사설서에서 발행되었고, 조선통보는 세종 대에 저화의 보조 화폐로 발행되었다.

③ 세종 대에 최윤덕이 4군을,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하였다.

11. ①

[영조와 정조 시기의 사실]

㉠ 정조, ㉡ 장헌세자(사도세자), ㉢ 영조

① 정조 대에 신해통공(1791)이 실시되면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은 폐지(육의전은 제외)되었다.

② 『동국문헌비고』와 『속대전』은 영조 대에 편찬되었다.

③ 수원 화성은 정조 대에 건설되었다.

④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가 실시하였다.

12. ④

[박지원의 『과농소초』]

사료는 박지원의 『과농소초』이다.

④ 박지원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화폐 유통의 필요성(용전론)을 주장하였다.

① 홍대용, ② 정약용의 여전론, ③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다.

13. ③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김득신은 조선 후기(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의 화가이다.

③ 포구나 큰 장사에서 금융, 운송업, 숙박 등을 담당하였던 상인은 객주이다.

① 조선 후기에는 민화가 유행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이 실시(광해군~숙종)되면서 삼품 화폐 경제가 활발해졌고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 재배가 많아졌다.

④ 조선 후기에는 『홍길동전』, 『춘향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14. ②

[홍선 대원군 집권기의 사실]

㉡ 1866년 병인양요 당시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㉔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된 시기는 1864년, 동학 교도 이필제의 난은 1871년에 일어났다.

㉕ 서계 사건은 1868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이후 왕정이 복고되면서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낸 외교 문서이다. 서계를 조선에서 접수하지 않자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를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㉖ 청전(淸錢)은 청나라 화폐로 유통을 시킨 것이지 발행을 한 것이 아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한 것은 당백전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㉗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지만 난파된 이양선의 선원을 구조하는 등의 일은 진행하였다.

15. ②

[동학 농민 운동]

② 2차 동학 농민 운동 당시 남접주는 전봉준, 북접주는 손병희였다.

① 1차 동학 농민 운동 이후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③ 동학이 장태를 사용하여 정부군과 싸웠다.

④ 동학 농민군이 해산된 이후 잔당들은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 등을 조직해서 활동하였다.

16. ④

[김구의 활동]

④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1948년 남북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후 남한에서 실시된 단독 선거인 5.10 총선거에는 불참하였다.

① 김구는 1932년 상해의 대한교민단 의경대장에 임명되었다.

② 김구는 임시 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③ 김구는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17. ③

[해외 항일 독립 운동사]

③ 1942년에 조선의용군이 창설된 것은 맞으나, 화북(연안)과 한국광복군으로 나누어 분화된 독립군 부대는 1938년 한커우에서 창설된 조선의용대이다.

①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1932년에 상하이에서 출범하였다. 이후 1935년 난징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단결을 촉구하였다.

선지에서 난징에 모여 출범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음)

② 중국 국민당 정부는 낙양 군관 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청천이 낙양 군관 학교의 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④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을 추진하면서 북만주의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18. ③

[일제 강점기 사회·문화]

③ 처음 어린이 날은 5월 1일로 정하였다.

① 1930년대에 상류층의 주택으로 문화 주택이 등장하였다.

②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민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27년 전국적인 농민 운동 단체인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④ 토월회는 1923년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극단이다. 토월회는 남녀 평등, 봉건적 인습 타파 등을 주제로 순회 공연을 펼쳤다.

19. ③

[해방 전후의 사회 정치 상황의 순서]

㉡ 정읍 발언(1946. 6.) → ㉢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1946. 12.) → ㉠ 남한 총선거(1948, 5.) →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 9.) → ㉤ 농지 개혁법 제정(1949. 6.)

20. ①

[1950년대의 시대 상황]

① 자유당은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대하기 위해’라는 말은 자유당의 활동과 맞지 않는다.

② 1958년 국가 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③ 2차 사사오입 개헌(1954)에 대한 설명이다.

④ 1차 발췌 개헌(1952)에 대한 설명이다.